



돈황 석굴에 매료돼 7년간 현장에서 모사와 창작에 전념했던 서용씨는 "1500년 시간의 흐름이 전해준 완벽함 속에서 진정한 예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자연으로 빛은 또 하나의 돈황

‘변화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예술이다.’

실크로드 문화의 중심에 자리잡은 돈황 석굴의 벽화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그렇다고 벽화를 그대로 카메라 앵글에 옮긴 사진전은 아니다. 돈황 벽화에 매료돼 석굴 아랫마을에 아예 화실을 꾸려 놓고 7년동안 모사(模寫)와 창작의 열정을 불태운 작가 서용(42) 씨의 벽화 전시회다. 주제는 ‘영원한 사막의 꽃-돈황전’. 서울 평창동 옥선센터 1층 갤러리에서 8월 31일까지 열린다.

서 씨의 이번 전시회는 지난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화랑박람회’와 중국서 두차례에 걸친 개인전에 이어 국내에선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서울대 동양화과를 나온 서 씨가 돈황 벽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대학 전공을 살려 제대로 된 벽화공부를 위해 92년 베이징 중앙 미술학원으로 유학 갔던 서 씨는 베이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인전을 가졌다.

“그때 일반인들에게 선보인 그림은 동양의 것도 서양의 것도 아닌 개성과 특징이 없는 혼돈 그 자체였지요. 그저 유행을 좇아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열심히 그렸는데도 가슴엔 웬지모를 허탈감만 가득했지요.”

서 씨는 마음속의 방황을 가라 앉히기 위해 귀국전 94년에 한 번 갔었던 돈황 석굴을 3년만에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이번

엔 달랐다. 첫 대면때에는 단지 모래 동굴속의 그림으로만 여겨지던 벽화들이 갑자기 서 씨의 마음속에 꽂 들어차기 시작했다. 석굴안을 가득 메운 5백여개의 벽화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후 7년동안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 그러곤 중국 공안에 벌금까지 내며 총 492개 석굴의 벽화와 불상을 모사했다. 3년전부터는

**석굴 벽화에 감동 현지어 7년간 작업 ‘삼위람승’ 등 재구성된 37점 전시**

**모사 넘어선 작가의 창조성 깊게 배어 자연미 살리려 황토에 석채로 채색**

외국인으로서 돈황 벽화를 연구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서 아예 먼저 돈황학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벽화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벽화는 당시의 벽화가 아니라, 1천여년 전 벽화를 그렸던 화공의 손과 1천년이라는 시간이 만나 완벽한 자연미를 창조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 옛날 화공이 금방 그린 그림은 인위적

## 돈황 벽화는?

### 1천여년간 걸쳐 조성

중국 간쑤성에 있는 돈황(敦煌) 석굴 내부에는 거대한 변상도와 각종 불교 이야기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다. 특히 천장 부분은 화려한 장식 도안화가 그려진 독립된 불국 세계로 꾸며져 있다.

이런 돈황 벽화가 중국의 3대 석굴인 낙양의 용문, 대동의 운강 석굴과 차별되는 것은 10개 조대에 걸쳐 1천여년간 조성돼 시대별 양식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벽화의 내용 면에서도 다른 석굴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다양한 특징을 지녔다.

돈황 벽화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불상화, 고사화(故事畵), 전통신화 소재, 경변화(經變畵), 불교사적화, 공양인 화상, 장식도안 등 7개로 나뉜다. 여기서 불상화는 불교에서 숭배하는 여러 신상을 그린 것으로 예를 들면 석가모니불, 3세불, 7세불, 미륵불 등의 불상과 관음·문수·보현보살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사화는 불경에 의거한 이야기 그림을, 경변화는 변상도와 같이 불경에 근거해 그린 회화들, 불교사적화는 불교의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등을 그린 것을 말한다.



변상도(變相圖) 연작 부분.



대막지관(大漠之觀) 부분.



아미타변상도 (阿彌陀變相圖).

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은 그 그림을 다시 자연의 의지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러는 적당히 변색되고, 더러는 해지고 어떤 부분은 떨어져 나가 자연의 일부가 되었지요.”

서 씨가 그린 돈황 벽화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단지 모사의 수준을 넘어 작가적인 창조성이 짙게 드러워져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57호굴 관음상과 천불, 석굴 천장의 문양으로 구성된 대작인 ‘수하설법천불도’를 보면 돈황 벽화 속 부처와 석굴 천장과 벽의 문양, 그리고 사막이 주는 기운을 힘찬 선(線)으로 재구성해 놓았다.

또한 알핏보면 신자기를 연상케 해 서 씨의 종교를 의심하게 만든 ‘삼위람승’은 알고 보면 하동 칠불사의 아미타방에서 따온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땅 표면처럼 빛바랜 색조의 추상적 이미지가 배경에 깔린 ‘아미타변상도’, 두 그림이 하나의 대칭 구조로 돼 있는 ‘상구보리하화중생’ 등 37점이 벽에 걸린다.

작품은 모두 돈황의 황토로 만들었다. 작업은 우선 흙판을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채색은 동양화 안료와 석채를 주로 사용하지만 작품에 따라 금·은가루를 바르기도 한다. 또한 벽화의 가장 큰 매력인 1500년 세월의 무게를 표현하기 위해 채색한 그림을 사포로 긁어냈다.

서 씨는 “자연”이란 단어를 ‘완벽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는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연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한 벽화가 인간적이고 편한 그림으로 느껴지지요. 이 벽화중의 백미가 바로 돈황 벽화입니다. 그것은 종교마저도 초월한 완벽함이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글=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 ▶ 후천을 연 대한민국

주역으로 풀이한 대한민국 100년사  
무극시대(1910~1944)  
-태극시대(1945~2004)  
-황극시대(2005~ )

※ 신국판 384쪽, 16400원.  
저자: 권원 운상철.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운명인가?  
54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초봉의 혼란  
45년 8월의 광복부터 2004년 8월말까지의 60년은 태극시대에 해당하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다(1편).  
6.25동란은 음과 양이 교류하여 미미를 잉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170~175쪽)  
올 8월말까지 막가파식으로 다투어야 나라가 잘된다(280~282쪽)  
9월 2일 신사의 사적경신의 행사가 시작되면, “도저히 아래서는 안되겠다”는 공경대가 걸려지고 동일을 열 庚金の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다(3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水路, 신의주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陸路, 나진에서 북극으로 뻗어가는 精神路의 삼태극이 이루어지면 人極人壽시대가 열린다(3편).

### ▶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다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배법을 아무런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반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 자미두수 전서

※ 4x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자미두수의 완결판, 진희이선생의 비급 자미두수전서를 완전 번역. 역자: 이두 김선호.  
“자미두수 입문” “심곡비결”이 7월 초에 출간됩니다.

### ▶ 하락리수(河洛理數)

4x6배판, 총 1900여쪽  
상하 1집 100,000원  
저자: 김수길운상철  
(부록:하락리수 쉽게보기)  
진희이 선생이 창안하고, 소강철 선생이 완성한 하락리수의 상세한 해석과, 작례 풀이법을 설명. 자신의 시주에 따라 일생의 운과 년운 월운 일운의 길흉을 판단할 수 있는 학문으로, 정이천 같은 철학자와 송동파 같은 문인도 그 정확성에 감복하여 일생의 지침서로 삼았다는 놀라운 적응력의 주역활용서.

### CD 하락리수(河洛理數 프로그램)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시주 견지와 선천운 추천운을 즉시 확인하는 물론 12조 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 운에 이어 대운은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청평결과 주역경,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 세풀이입니다.

※ 가격 300,000원  
총괄: 운상철.  
2004년 6월 증보.

### ▶ 편해매화역수(編解梅花易數)

※ 4x6배판 증보판  
20,000원  
저자: 김수길운상철  
2004년 3월 20일 증보판 발행.

“알기는 소강철”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주역의 대가이자 정미 최고의 최고봉이었던 소강철 선생 그 정미의 전수와 대가들의 비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점법에 따른 점치는 방법과 해석을 실전위주로 정리. 기존 편해매화역수에 소강철선생의 절자수, 글자점, 황극역수주수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여 소강철 점학에 대한 이해를 높임.

### ▶ 근간안내

자미입문  
심곡비결  
비서삼종  
주역입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유학당**  
2249-5630  
홈페이지 : 대유학당